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개	회	송 46장	다	같	이
교	독	문 33번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69장	다	같	이
기	도	이	영	제 목사
성	경	봉 독 고전3:12-18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목사
		(13. 나의 영신 예수님)			
찬	송 499장	다	같	이
현	금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송	영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	이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주양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쁨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과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양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 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양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약한 세력과 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 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주일오후 2시에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0:1-18 율법은 그림자

7절 “ 두루마리 책” kefalivdi biblivou(케팔리디 비블리우)은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달려있는 막대기 봉을 말한 것으로 구약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막14:49).

9절 7절의 “ 말하기를” ei\pon(에이폰)은 부정과거인데 본 절의 “ 말씀하시기를” ei[rhken(에이켄)은 직설법 완료형으로 사용해 그리스도의 과거의 말씀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원문은 완벽하게 i{na(히나)를 중심으로 (ajnairei' to; prw'ton i{na to; deuvteron sthvs'h:) 폐심 -> 세우심, 첫 것과 -> 둘째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 이 뜻”은 5-7절, 8-9절에서 말한 것이다. “ 드리심” prosfora”(프로스포라스)는 70인역(LXX)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시39:7, 단3:38). 행24:17 “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의 “ 재물” 도 이 단어로 사용되었다.

hJgiasmevnoi(해기아사메노이) “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별되게” 되었다. 완료 수동태 주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11절 레위 제사장들 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해야 했는데(6절) 이렇게 반복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2-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시110:1의 인용으로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사장들이 매일 같이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과 그들은 결코 성소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에 비해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신 상태에서 하나님 우편에 ejkavqisen(에카디센) “ 앉으셨다” (막16:19, 히1:3, 히8:1)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가 ‘ 단번에’ (10절), ‘ 한 제사를 드리고’ (12절)는 앞의 부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드러진 제사로 aJgiazomevnou”(하기아조메노우스) “ 거룩하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다음 16-18절의 예레미야 31장 33-34 절의 말씀을 Marturei’(말튀레이) “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깨우치다” 의 현재형으로 말해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 현재 다시 증거 되고 있음을 말한다.

16-17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고 저자는 이미 렘31:31-34은 히8:8-12에서 언급한바 있고 여기서는 렘31:33-34만 뽑아서 “ 저희와 세울 언약” 을 두 가지 약속만 언급한다.



이영제 목사
주안교회 담임
원주대신교회 대표

발자국

어떤 사람이 늘 술집을 드나들면서 주정이나 했는데 어느 주일에도 역시 술집으로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기의 꼬마 자식이 타박타박 따라오더랍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고 "너 어디 가느냐?"했더니 "아버지 발자국 따라가요"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발길을 돌이켜 교회로 갔더니 그 아들이 역시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 교회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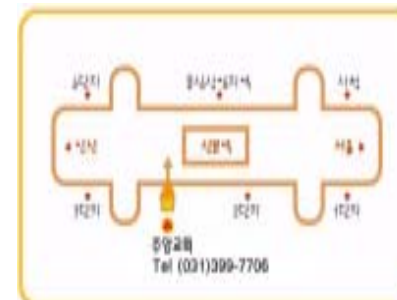
주안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안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2. 나의 산 돌이신 예수님) / 본문 : 마7:24-27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집에서 살고 집에서 죽는 것입니다. 집은 곳 우리의 안식처요 가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먼저 설계를 해야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넓은 마음으로 전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설계를 잘해서 집이 지어져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다 지어서 그 집을 활용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집이 잘못되어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집을 지은 사람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나는 기초가 필요 없다.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 갈 것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초가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초는 세상 학문, 물질,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집을 설계하고 지었다면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초가 잘못된 자기 집을 계속 짓는 사람입니다.

집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뉴욕과 호주의 시드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라면 이탈리아의 베니스는 아드리아 해의 물 속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엔 뉴욕이나 시드니 같은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7:25)라고 하십니다. '반석'은 원어로 페트라(pevtran)입니다. 이 말은 바위, 암반을 말하며 천연요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은 팔레스틴의 지형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틴은 건기 때에는 바짝 마른 땅도 우기(wadi)때에는 급류가 내려갑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선교사님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땅을 봐두었는데 건기 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니까 그 땅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지으면 물 속에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기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건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침례교목사를 지낸 에드워드 모트(1797-1874)가 작곡한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의 후렴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소원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2003.9.21)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